

Spain /
Latin America

호르헤 부카이: 21세기 라틴아메리카 출판계를 정복한 새로운 작가

송병선_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호르헤 부카이는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이름이지만, 그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의 책은 소설과 비소설을 막론하고 거의 항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 있다. 호르헤 부카이는 1949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살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정신과를 전공한 그는 현재 게슈탈트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책은 대부분 인간의 심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이건 비소설 형식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서'인 것이다.

그의 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총 4권으로 이루어진 《길》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자기 종속의 길》이다. 여기서 그는 급진적이면서도 명민하게 왜 독립이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종속은 왜 우리를 독립적 개체로 형성하도록 놔두지 않는지 설명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정복할 길로서, '자기 종속의 길'을 제시한다. 이것은 자아실현이나 성공, 혹은 행복을 얻거나 정상에 오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결심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첫 단계이며,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만남은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두 번째 책인 《만남의 길》에서 부카이는 과감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입에 올리는 주제를 다루면서 독자를 새로운 길로 이끈다. 그 길의 주제는 바로 타인과 만나고, 사랑과 성과 마주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자신과의 만남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용기를 내어 이 길을 걸어 가야 한다고 부카이는 주장한다. 남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과 접촉하는 것이 이 여정의 목표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작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전개한다. 즉, 우리 문화에서 사랑과 성에 관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믿음을 탈신비화시키고, 부모와 자식 혹은 형제간의 관계를 탐색하기도 하며, 사랑과 결혼에 대한 발판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이런 것을 통해 부카이는 우리가 지니고 있던 관념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에 도전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 두 번째 길은 타인을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세 번째 책인 《눈물의 길》은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을 잇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흔히 '상실'이라고 부르는 것과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는 방법을 가르친다. 부카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버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자아실현을 할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고통과 상실은 성숙해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목표의 최대 공간을 정복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행복의 길》은 《길》 시리즈의 마지막 책이다. 자기 종속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눈물의 길을 걸은 후에 우리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영원히 행복한 것일까 아니면 행복이란 순간적으로만 지속되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이 책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환상과 욕망, 그리고 그런 것에 바탕을 둔 행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에 관해 말하면서, 행복은 개인적인 탐구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무조건적인 약속에 의해 좌우된다고 역설한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고 그는 단적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바보 같은 OSO의 법칙, 부당한 차별의 희생자 그룹, PQMV 설문을 통해 우리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제시한다. **한글**